

## 우울증과 인과귀인 : 개관

이 영 호 · 원 호 택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우울증과 인과귀인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의 결과는 비일관적이다. 이 개관에서, 부정적 사건에 대한 안정적이고 총체적인 귀인이 우울과 관련되는 것을 보이고 있으나, 긍정적인 사건에 대한 귀인과 우울의 관계는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귀인양식의 측정, 우울증의 이질성, 그리고 연구방법 등과 같은 방법론적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또한 우울한 사람들의 귀인이 사실주의적인가 하는 문제와 우울귀인양식과 우울증의 인과적 관계에 대해 논의되었다. 끝으로 우울증의 특이질-스트레스 모델을 적절하게 검증하기 위한 미래의 연구에 대한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우울증에 관한 인과귀인 연구는 Abramson, Seligman, 및 Teasdale(1978)에 의해 학습된 무기력 이론이 수정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원래 동물실험에서 나온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Overmier & Seligman, 1967)이 인간의 우울증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채택되어 많은 연구를 거치면서 몇가지 제한점이 드러났다. 즉, 학습된 무기력 이론으로는 우울증에 수반되는 자존심(self-esteem)의 손상을 설명하기 어렵고, 우울증의 정도나 지속기간에서의 개인차가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 제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Abramson 등(1978)은 귀인개념을 도입하여 이론을 수정하였다. 통제불가능한 사건이나 실패를 내적이고, 안정적이며, 총체적인 요인으로 귀인하는 것이 자존심의 손상을 초래하며 우울증 증상의 일반화와 만성화를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정된 이론으로부터 우울생성적 귀인양식(depressogenic attributional styles)이라는 개념이 발전되었다. 우울생성적 귀인양식이란 긍정적인 사건을 외적이고, 변동적이며, 특정

적인 요인으로 귀인하며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내적, 안정적, 총체적 요인으로 귀인하는 지속적인 개인의 경향을 의미한다(Seligman, Abramson, Semmel, & von Bayer, 1979). 이러한 귀인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울증에 취약하다고 주장되었으며, 이때부터 우울증 또는 우울과 인과귀인의 관계에 대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행해졌다.

우울증에 관한 인지적 이론들은 최근 들어 많은 경험적인 연구들을 이끌면서, 그 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 다루고 있는 우울증과 관련된 인지적 변인들(cognitive variables)은 몇가지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Ingram & Hollon, 1986). 이 인지분류체계내에는 인지적 구조(cognitive structures), 인지적 명제(cognitive propositions), 인지적 작동(cognitive operations), 및 인지적 산물(cognitive products)등 네가지의 성분들이 존재한다.

첫째, 인지적 구조란 정보가 기억에 표상되는 방식

이나 방법을 말한다. 즉, 인지적 구조는 기억내용의 체계화를 의미하며, 저장된 기억들(일화기억)과 개념들 그리고 사실적 정보(의미기억)간의 연결이나 연합과 같은 개념들을 포함한다(Tulving, 1972). 인지적 구조는 인지적 명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개 인지적 명제에 포함되어 연구되어 왔다.

둘째, 인지적 명제란 다양한 인지적 구조에 실제로 표상되어 있거나 저장되어 있는 정보나 내용을 뜻한다. 우울증에 관한 이론에서는 도식(Beck, 1967)과 인지적 회로망(cognitive network, Bower, 1981; Ingram, 1984)이라는 두가지의 인지적 구조가 수용되고 있다. 두 개념들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도식 개념에는 그것이 어떻게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논의가 없는 한편 회로망이론에서는 활성화의 확산과 같은 방식을 통해 이러한 면을 정교화시킨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우울증과 관련된다고 가정되는 우울도식의 내용은 주로 부적인 자기참조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우울도식이 활성화 될 때 이에 수반되는 인지적 편중과 왜곡이 초래된다고 주장되고 있다(예, Alloy & Abramson, 1979, 1982).

셋째, 인지적 작동이란 인지적 처리체계의 성분이 작동하는 다양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Turk와 Speers(1983)는 그러한 과정들을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정보의 능동적 조작을 담당하는 요인들이라고 규정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지적 작동에 포함되는 구성개념들은 규칙과 추단율(rules and heuristics, Kahneman, Slovic, & Tversky, 1982), 주의과정(Duval & Wicklund, 1972; Ingram & Smith, 1984), 통제과정(Carver & Scheier, 1981), 그리고 활성화 개념들(Bower, 1981; Collins & Loftus, 1975) 등이 있다. 과정의 견지에서, 대부분의 견해들이 우울증을 자동적 정보처리의 특수한 종류에 의해 특징 지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수렴되고 있으며, 자동적인 방식으로 우울도식이 활성화되거나 자기충점적인 주의를 이끌어 우울증상들을 발현시킨다고 가정하고 있다.

넷째, 인지적 산물이란 정보의 입력과 인지구조, 명제, 및 작동들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나오는 인지들

을 말한다. 가장 명확하게 이 범주에 속하는 우울관련 변인들은 자기진술, 귀인, 추론, 그리고 심상 등이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변인은 우울생성적 귀인이다.

귀인은 인지심리학 뿐 아니라 사회심리학에서도 오래전부터 주목받아온 영역이다. 개인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귀인의 문제는 Heider(1958)의 동기론적 입장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사람들이 실패보다는 성공에 대해 인과적 책임을 더 가지려하는 경향은 자신들을 즐겁게 하고 유리한 처지에 놓기 위해서라고 보았다. 우울한 사람들의 인과귀인도 이같은 동기론적 입장에서 해석되기도 한다. 즉 우울한 사람들과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의 귀인양식에서의 차이는 첫째, 우울한 사람들이 자기평가 또는 자존심을 보호하거나 고양시키려는 동기가 부족하거나, 둘째, 우울한 사람들이 인과귀인이 자기와 자신의 욕구에 어떻게 봉사하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가정된다.

이러한 동기론적 설명과는 다른 입장이 합리론적 설명이다. 이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합리적이지만, 그들의 합리성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처리하고 단순화하는데 사용되는 원리와 추단율이 편중이나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울증과 관련된 귀인연구에서는 주로 합리론적 입장을 택하고 있으며, Kelley(1967)와 Weiner, Frieze, Kukla, Reed, Rest 및 Rosenbaum(1971)의 귀인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우울증에 관한 인과귀인이론의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최근에는 모델의 정교화와 새로운 연구방향들이 시도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Abramson, Alloy, 및 Metalsky(1988)는 Abramson 등(1978)의 이론을 정교화하여 특이질-스트레스 모델(diathesis-stress model)로서 '무망감 모델(hopelessness model)'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울증과 인과귀인에 관한 이전의 연구들을 개선하는 새로운 연구들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울과 인과귀인의 관계에 대한 이전의 경험적인 연구의 결과들을 개관하고, 이전 연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검토한 후, 새로운 연구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 경험적 연구결과들의 개관

우울증과 인과귀인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무엇에 대해 귀인하느냐에 따라 연구자가 제시한 가상적인 사건들에 대한 귀인, 실제로 피험자가 겪는 생활경험에 대한 귀인, 그리고 실험과제의 성과에 대한 귀인 등 세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가상적 사건들에 대한 귀인

많은 연구들이 우울한 사람들과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상적 사건들에 대해 행하는 인과귀인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는 ASQ(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Seligman et al., 1979)이다. 자기보고형 설문지인 ASQ는 긍정적 사건과 부정적 사건 각 6가지씩, 성취 관련 사건과 대인관계 관련 사건 각 6가지씩의 12가지 가상적 상황의 시나리오에 대해 원인의 세 차원(내외성, 안정성, 총체성)을 Likert형 7점척도로 표시하게 만든 것이다.

### 대학생 전집을 사용한 연구들

대부분의 ASQ연구들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해졌는데, 그 최초의 연구는 Seligman 등(1979)에 의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Beck, 1967)상에 나타난 우울점수가 부정적 성과에 대한 내적 안정적 총체적 귀인과 긍정적 성과에 대한 외적 변동적 구체적 귀인에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를 보였다. 후속연구들이 이러한 패턴의 결과를 반복검증하였다(Feather, 1983; Nezu, Nezu, & Nezu, 1986).

그러나 어떤 연구들은 귀인양식과 우울간의 명확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했다. Golin, Sweeny, 및 Shaefter(1981)는 Seligman 등(1979)의 결과를 부분적으로만 반복검증하였다. 즉 부정적인 성과에 대한 내적 안정적 총체적 귀인만이 우울과 관련되었다. Cutrona, Russell, 및 Jones(1984) 역시 ASQ와 우울간의 약한 관계를 보고하였다. 그들은 1000명이 넘는 학생 표집에서 ASQ가 우울점수의 변량중 4%밖에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Blaney, Behar, 및 Head(1980)는 우울이 부정적 성과에 대한 귀인의 안정성 총체성 차원과는 정적으로 상관되지만, 부정적 성과에 대한 내외성 차원은 우울과 관련이 없다는 혼합된 결과를 보였다. 최근의 연구들에서도 혼합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Carver, Ganellen, 및 Behar-Mitrani의 연구(1985)에서는 긍정적 사건에 대한 내외성과 안정성 귀인이 우울과 부적 상관을 보고하고 있는 한편, Zautra, Guenther, 및 Chartier(1985)는 긍정적인 사건들에 대한 귀인이 우울을 예언한다는 증거를 얻지 못하였다. Tennen과 Herzberger(1987)는 우울생성적 귀인양식이 우울수준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자존심 수준과 정적으로 상관된다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어떤 연구들은 내적 귀인을 자기비난과 연결시켜 우울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Peterson, Schwartz, 및 Seligman(1981)은 Life Event Questionnaire(Marx, Garrity, & Bower, 1975)로부터 12개의 부정적인 사건들을 선택하여, 우울과 기질적 및 행동적 자기비난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기질적 비난이란 자신의 지속적인 총체적인 특성에 대한 비난을 의미하고, 행동적 비난이란 자신의 일시적이고 구체적인 특성에 대한 비난을 말한다. 그 결과 BDI점수가 부정적 사건에 대한 행동적 자기비난의 정도와는 부적 상관이 있는 반면, 기질적 자기비난의 정도와는 정적으로 상관을 보였다. 긍정적인 사건에서는 두가지 다 우울과 관련이 없었다. Janoff-Bulman(1979)은 네가지의 부정적인 가상 상황에 대한 우울한 사람들과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과귀인을 측정한 결과, 행동적 자기비난에서는 두 집단간 차이가 없었으나 우울한 사람들이 기질적 자기비난을 더 많이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안정적이고 총체적인 귀인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임상전집을 사용한 연구들

우울증 환자들을 사용한 연구들은 혼합된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Raps, Peterson, Reinhard, Abramson, 및 Seligman의 연구(1982)에서는 우울증환자들이 비우울정신과 환자군과 정상통제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성과를 내적이고 안정적인 요인으로 더 귀인하며, 긍

정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우울증환자들이 정상통제집단보다는 외적이고 변동적인 요인에 더 귀인했으나 비우울정신과 집단과는 차이가 없었다. Eaves와 Rush(1984)는 임상우울환자들이 비우울집단보다 부정적 사건에 대해 내적 안정적 총체적 귀인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 관계는 증상이 완화된 환자들에게서도 나타남을 밝혔다. 한편 긍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Persons와 Rac(1985)는 안정성과 총체성 귀인이 독립적으로 BDI점수 변량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만, 부정적 사건에 대한 총체적 귀인이 높은 BDI점수와 관련되는 반면 부정적 사건에 대한 안정적 귀인은 낮은 BDI점수와 관련된다는 예상치 않은 결과를 얻었다. 또한 우울증이 완화된에 따라 부정적 사건을 내적이고 안정적이며 총체적인 요인에 귀인하는 경향이 감소한다는 결과도 얻었다. Hamilton과 Abramson(1983)의 결과는 이 논제를 더 혼란시키고 있다. 우울증환자들이 비우울정신과 환자들보다 긍정적인 사건에 대해 덜 이기적인(외적, 변동적, 특정적) 귀인을 하였으나,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Miller, Klee, 및 Norman(1982)은 우울한 환자들과 우울하지 않은 환자들 사이에 ASQ상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 연구들의 일관성없는 결과들은 만성 우울증에서의 귀인양식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우울귀인양식이 우울증에 특정적인가 아니면 불안장애와 같은 다른 정신병리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인가 하는 문제가 함께 다루어졌다. Heimberg, Vermilyea, Dodge, Becker, 및 Barlow(1987)는 우울증의 하위 유형인 감정부전장애(dysthymia) 환자들과 불안장애 환자들, 그리고 정상인들에게 ASQ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 사건에 대해서는 감정부전장애 환자들과 우울한 불안장애 환자들이 우울하지 않은 불안장애 환자나 정상인들보다 더 안정적이고 총체적인 귀인을 보였으며, 더 내적인 귀인을 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한편 긍정적 사건에 대해서는 심하게 우울한 감정부전장애 환자들만이 우울하지 않은 불안장애 환자들에 비해 외적이고 변동적인 귀인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귀인양식이 우울증이라는 진단보다는 BDI상에 나타난 우

울한 정도와 더 큰 관련을 갖는다는 함의를 지닌다. Heimberg, Klosko, Dodge, Shadick, Becker, 및 Barlow의 연구(1989)에서도 우울증환자와 불안장애 환자 그리고 정상인 등 세 집단의 귀인양식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상집단에 비해 우울집단이 우울귀인양식을 보였으나, 불안집단과 우울집단은 귀인양식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로써 우울귀인양식이 우울증환자에게서만 보이는 특정한 특징이라는 가설이 기각되었다.

최근의 다른 연구(Seligman, Castellon, Caccocia, Schulman, Luborsky, Ollove, & Downing, 1988)에서는 우울증 일화를 경험하고 있는 단극성 우울증 환자들과 양극성 장애 환자들이 인지치료 실시전, 치료 종결시, 그리고 종결 1년후에 우울정도와 귀인양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두 우울집단은 세 시점에서 모두 BDI상에 나타난 우울정도와 귀인양식이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치료전에 비해 치료종결후 우울정도와 우울귀인양식이 다같이 줄어들었다. 연구자들은 우울과 귀인양식이 높은 공변관계를 보인 이 결과를 우울귀인양식의 변화가 우울증의 인지치료에서 중요한 치료작용기제를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스트레스가 되는 생활경험에 대한 귀인

이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는 편이나, 몇 연구들에서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경험들을 덜 이기적으로 설명한다는 가설을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다. Barthe와 Hammen(1981)은 중간고사의 성공실패에 대한 귀인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우울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도 나쁜 성적을 자신의 능력부족에 귀인하는 경향을 보이나, 좋은 성적의 경우에는 우울과 관계가 없었다. Zautra 등(1985)도 부정적인 생활사건에 대한 내외성, 안정성, 총체성 차원의 귀인이 우울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나, 긍정적인 생활사건에 대한 귀인과 우울은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Tabachnik-Kayne, Alloy, Romer, 및 Crocker(1986)는 대학생들에게 귀인추정을 한 뒤 중간시험에 대한 예상을 하게 하였다. 그 결과 우울귀인양식과 시험성의 상호작용이 시험후 우울정도와 관련되었다. 즉

우울귀인양식을 가진 학생들이 나쁜 시험성적(예상보다 낮은 점수)을 받은 후에 더 우울해졌으며, 나쁜 시험성적을 받은 후에는 덜 고양되었다. 잠재변인 분석에서는 나쁜 시험성적을 받은 후에 더 우울해진 것은 나쁜 시험성적을 특정적으로 귀인하는 것에 의해 증대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Metalsky, Halberstadt, 및 Abramson(1987)은 대학생들에게 중간시험과 성적을 받은 전후의 5시점에 걸쳐 우울증도와 귀인양식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울증도를 측정하기 위해 MAACL(Multiple Affect Adjective Check List, Zuckerman & Lubin, 1965)이, 귀인양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사건 12상황만 주어지고 안정성과 총체성을 통합시킨 수정된 ASQ와 시험 성적에 대한 귀인을 알아보는 PAQ(Particular Attributional Questionnaire)가 함께 사용되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즉각적인 우울정서 반응은 중간고사에서 받은 성적에 의해서만 예언되었으며, 그들의 지속적인 우울정서반응은 귀인양식과 시험성적의 상호작용에 의해 예언되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여러가지의 방법론적인 시사점과 귀인양식의 내용 특정적 취약성(content-specific vulnerability)에 대한 검증이 주목할만하다. 이 논제에 대해서는 뒤에 따로 언급하겠다.

몇몇 연구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회상하게 하여 우울한 사람들이 그 사건들을 어떤 방식으로 귀인하는지를 알아 보았다. Harvey(1981)는 우울한 사람들이 회상된 과거의 긍정적 사건들에 대한 귀인에서는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지 않지만, 부정적인 사건은 더 내적인 원인에 귀인하며 통제가능한 것으로 지각하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Hammen, Krantz, 및 Cochran(1981)은 5가지 스트레스경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스트레스경험들을 통제가능하고 총체적인 요인에 귀인하는 것이 우울정서와 정적으로 상관되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비슷한 결과가 Cochran과 Hammen의 연구(1985)에서도 보고되었다. 2달 간격의 두시점에서 스트레스경험에 대한 귀인이 조사되었는데, 그 결과 시점 1에서의 귀인과 우울간의 관계에서는 총체성 귀인만이 우울과 관련되었으나 시점 2에서는 총체성과 내외성 귀인이 우울과 관련되었다.

Hammen과 Cochran의 연구(1981)에서는 면접법과 질문지를 사용하여 최근의 스트레스사건에 대한 귀인을 알아본 결과, 우울한 사람들과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의 귀인이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Hammen과 de Mayo(1982)는 고등학교 교사들의 우울증도가 스트레스경험에 대한 인과귀인과 관련이 없으며, 그러한 사건들의 발생에 대한 자신들의 통제지각과 부적으로 상관되었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우울이 부정적 사건들에 대한 지각된 통제와 정적으로 상관된다는 Harvey(1981)와 Hammen 등(1981)의 연구와 상반되는 것이다.

임상 우울환자를 사용한 연구에서 Cochran과 Hammen(1985)은 부정적인 생활사건에 대한 내외성과 총체성 귀인이 우울을 예언한다고 보고하였다. 잠재변인 분석에서는 귀인이 우울점수 변량의 42%를 설명한다는 것을 밝혔다. Gong-Guy와 Hammen(1980)은 우울환자들이 최근의 스트레스경험을 내적인 요인으로 더 귀인하는 경향을 보고하였다. Miller 등(1982)은 우울증환자들이 스트레스경험에 대해 비우울 정신과환자들에 비해 덜 이기적인 귀인을 하였으나, 두 집단의 환자들이 ASQ에 대한 반응에서는 다르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인과귀인의 범상황적 일관성과 ASQ의 구성타당도를 의심케 하는 점이다.

### 과제수행에 대한 귀인

우울한 사람과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취나 대인관계를 포함하는 실험과제에서의 수행에 대한 귀인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수행에 대한 피이드백을 비수반적으로 조작하여 성공 및 실패 상황을 만들고 피험자로 하여금 귀인을 하도록 하는 연구들이 행해졌다.

### 성취과제에 대한 귀인

부정적인 성과에 대해 이기적인 설명을 하는 면에서는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약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결과가 일관적이지 못하다. 우선 대학생 집단을 사용한 연구를 보면, 가장 오래된 것으로 Ritzley의 연구(1978)가 있다. 그는 단순한 숫자추측과제에서의 비수반적인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 귀인을 하

게 하였더니, 우울한 학생들이 우울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실패에 대해 좀더 내적인 귀인을 하였으나 성공에 대한 귀인에서는 두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우울한 학생들의 인과귀인은 긍정적 성과와 부정적 성과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우울하지 않은 학생들과 달리 그들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설명에서 공정하였다.

Kuiper(1978)도 우울한 학생들이 실패에 대해서는 우울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내적인 귀인을 하였으나, 성공에 대해서는 두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우울한 사람들이 실패를 능력부족과 같은 내적 요인에 귀인한다는 결과는 Oliver와 Williams(1979), Zemore와 Johansen(1980) 등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이 연구들에서도 우울한 사람들이 성공에 대해서 덜 이기적으로 귀인한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우울한 아동들이 우울하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실험실 과제의 성과에 대해 덜 이기적인 귀인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임양화와 오경자(1989)는 국민학교 5-6학년 아동들에게 차례맞추기 과제를 실시하게 한 다음 피이드백으로 성공이나 실패를 조작하였다. 성공 및 실패에 대한 귀인을 하게 한 결과, 우울한 아동들은 자신의 실패를 내적이고 안정적인 요인에 귀인하는 한편 자신의 성공을 외적인 요인에 귀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는 달리 Ward, Friedlander, 및 Silverman의 연구(1987)에서는 우울한 아동과 우울하지 않은 아동들이 글자수수끼끼 과제(anagram task)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귀인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임상전집을 사용한 실험연구들도 있으나, 회의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bramson, Garber, Edwards, 및 Seligman(1978)은 기술과제와 우연과제에서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귀인을 우울정신과환자, 비우울정신분열증환자, 그리고 정상통제집단에서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집단간에 귀인의 내외성이나 지각된 통제에서 아무런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Gotlib과 Olson(1983)은 Abramson 등의 결과가 성과의 실험적 조작이 피험자들에게 성과지각에서의 차이를 일으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비판하였다. 이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그들은 우울환자, 비우울환자, 및 정상

통제집단에게 자기가 판단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귀인을 하게 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자신의 수행이 성공적이었다고 지각한 피험자들은 실패했다고 지각한 피험자들보다 성과를 내적 요인에 귀인하는 경향이 많았다. 반대로, 자신의 수행이 실패했다고 지각한 피험자들은 이 성과를 외적 요인에 귀인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성과의 유인가 효과는 피험자 집단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즉 모든 피험자들이 인과귀인에서 이기적 편향을 보였다.

### 대인관계관련 과제에 대한 연구

Rizley(1978, 실험2)는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그 영향이 부정적인 대인관계에 대해 통제감을 더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부정적 성과에 대한 책임감이나 내외성 귀인에 대해서는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피이드백에서 나타난 대인관계 영향이 긍정적일때 우울한 사람들과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간에 통제나 인과귀인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Sharp와 Tennen의 연구(1983)에서도 우울한 사람들이 이기적인 귀인편향을 덜 보였다. 그들은 우울한 사람들과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공감과제를 시킨 다음, 실패했다는 피이드백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울한 사람들보다 실험동조자나 과제와 같은 외적인 요인에 대해 더 비난하였다. Zuroff(1981)는 우울과 이기적 귀인편중간의 관계에 대해 중간적인 결과를 보였다. 우울한 학생들이 우울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과제실패에 대해 더 내적인 귀인을 하지만, 성공적 성과에 대해서도 더 내적인 귀인을 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앞의 세 연구와는 달리 귀인양식을 독립변인으로 채택한 연구도 있었다. Sacks와 Bugental(1987)은 무기력한 귀인양식을 가진 사람과 무기력하지 않은 귀인양식을 가진 사람이 사회적인 상황에서의 성공이나 실패 경험후에 나타내는 정서적 반응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무기력한 귀인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려운 사회상황 경험후에 우울해지며, 무기력하지 않은 귀인양식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긴장과 불쾌감을 보였다. 한편 무기력하지 않은 귀인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경험의 성공이나 실패에 관계없이 적응

적인 반응을 보였다.

## 경험적 연구들의 방법론적인 문제점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의 개관을 통해, 우울과 인과귀인의 관련성이 일관성있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신뢰로운 발견은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부정적 성과에 대해 내적이고 안정적이며 총체적인 귀인을 한다는 점인 것 같다. 긍정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인과귀인이 두 집단간 차이가 없으며, 두 집단 모두 외적 귀인 보다 내적 귀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우울증에 관한 인과귀인 모델의 가설들에 대한 이 같은 덜 명료한 결과는 이전 연구들의 방법론적인 결함들과 어느정도 관련되는 것 같다. 따라서, 이전 연구들에서 드러났던 방법론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 검증력의 문제

이같이 연구결과들이 일관적이지 못한 원인을 Robins(1988)는 연구들의 검증력(power) 부족으로 돌리고 있다. 그는 피험자수가 많을수록, 피험자를 두 집단이나 세집단으로 나누는 것보다 연속적인 점수를 사용하는 것이, 상관계수나 회귀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그리고 가상적인 사건들에 대한 귀인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의 검증력을 높인다고 지적하였다. 검증력이 높은 연구들(예, Anderson, Horowitz, & French, 1983; Blaney et al., 1980; Cutrona et al., 1984; Feather, 1983; O'Hara, Rehm, & Campbell, 1982)은 모두 우울귀인양식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내외성 귀인을 제외한 다른 귀인 차원들, 즉 안정성, 총체성, 그리고 귀인의 혼합(composite) 등에서는 우울귀인양식과 우울간의 관계가 지지되었다(Peterson, Raps, & Villanova, 1985; Robins, 1988). Peterson 등(1985)은 61개의 연구를 개관하여, 모델을 지지하는 연구와 그렇지 않은 연구를 구분해주는 고상관 요인을 세가지 밝혔다. 우울과 귀인간의 관계는 큰 피험자 표집, 가상적 사건, 그리고 많은 수의 사건에 대한 귀인을 사용한 연구들에서 나왔다고 결론

지었다.

## 귀인측정의 문제

Peterson과 Seligman(1984)는 그들의 개관에서 ASQ가 타당하고 신뢰로운 측정도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Cutrona 등(1984)은 몇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상당히 낮은 신뢰도 계수, 둘째, 요인분석 결과 상황 특정성이 상당한 정도로 시사되는 점, 셋째, ASQ가 여자들의 부정적 사건에 대한 인과귀인을 빈약하게 예언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신뢰도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내외성 차원의 내적 일관성이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 Robins와 Block의 연구(1989)에서는 내외성 차원의 Cronbach  $\alpha$  계수가 .14였으며, 국내 번안판(신현균, 1990)에서도 긍정적 사건에 대해 .40, 부정적 사건에 대해 .47로서 다른 차원들에 비해 매우 낮았다. 또한 긍정적 사건에서는 세차원간의 상관이 매우 높아 차원간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Peterson, Semmel, von Baeyer, Abramson, Metalsky, & Seligman, 1982). 내외성 차원과 긍정적인 사건들에 대한 각 귀인차원이 우울과의 관련성이 적은 결과들은 이러한 문제점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ASQ의 문항 내용에 대한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우선 긍정적 사건들과 부정적 사건들이 내용면에서 다른 상황들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여 Feather와 Tiggemann(1984)는 BASQ(Balanced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다. BASQ는 긍정과 부정 문항들이 성과의 방향만 다르고 문항내용이 같도록 되어 있으며, 문항수를 16개로 늘렸다. 그 결과 내적 신뢰도가 원래의 ASQ보다 높아졌다. 둘째, ASQ의 문항내용들은 일상적으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개인에게 주는 중요성의 측면에서는 덜 중요한 사건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귀인을 잘 예언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또한 젊은 대학생 위주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수가 적어서 개인의 대표적인 귀인양식을 측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 중의 일부를 개선하고자 Peterson과 Villanova(1988)는 확장된 ASQ를 개발하였다. 이것은 24개의 부정적 사

건들로만 구성되었으며, 원래 ASQ보다 신뢰도가 향상되었다. 그러나 내외성 차원이 가장 낮은 내적 일관성( $\alpha = .66$ )을 보였으며, 안정성 차원과 총체성 차원이 서로 높은 상관을 보임으로써 두 차원이 독립적인 차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안정성과 총체성의 이같은 높은 상관은 Metalsky 등(1987)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그들은 일반성(generality)이라는 차원으로 두 차원을 결합시켰다. 이같은 ASQ의 문제점들은 ASQ가 귀인양식의 빈약한 측정치이거나, 귀인양식이라는 가정된 특질이 문제있는 구성개념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ASQ의 사용에 있어서 또하나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귀인양식의 혼합지표(composite index)의 가중치에 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연구에서 내외성, 안정성, 총체성이 동일한 가중치로 합산되어 귀인양식의 혼합지표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같은 동일 가중치의 사용은 귀인의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방향으로 편증을 유도한다는 것이다(Perloff & Persons, 1988). 따라서 전집의 무선표집이 가능하다면 각 차원에 일관적이고 편증되지 않은 가중치의 추정치를 얻어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 다른 문제는 귀인양식 측정절차의 다양성에 관한 문제이다. Watson과 Dyck(1984)는 피험자가 자발적인 귀인을 차원적으로 평정할 때는 우울 귀인양식이 지지되었으나, 피험자가 귀인한 것을 평정자가 차원으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지지되지 않았다. Krantz와 Rude(1984)도 인과귀인의 측정방식에 따라 수렴도가 낮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 피험자 선정의 문제

그 다음으로는 피험자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몇 개의 연구만이 임상우울집단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울과 비우울의 차이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러한 가능성은 우울이 단일차원이고 경한 우울과 심한 우울이 양적인 차이 뿐 아니라 질적인 차이를 반영한다는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한 집단의 결과를 다른 집단에 일반화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BDI와 같은 우울 측정치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울 측정치들이 무엇을 측정하는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임상 전집에서 BDI에 의해 측정되는 우울은 다른 정신병리, 특히 불안과 매우 높은 상관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으며(Golin & Hartz, 1979; Gotlib, 1984), 이에 대한 반박도 있다(Tashakkoni, Barefoot, & Mehryar, 1989). Hill, Kemp-Wheeler, 및 Jones(1986)는 대학생 집단과 정신과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BDI에 관한 요인분석을 통해 우울의 신체적 요인이 환자 집단에서만 발견됨을 보고하였다. 현재로서는 심한 우울과 경한 우울이 양적인 정도의 차이인지 아니면 질적인 차이인지에 대해 결론내릴 수 없지만, 다른 정신병리의 혼입 가능성을 배제하고 좀더 엄밀한 측정치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피험자와 관련된 문제로, 우울증이 이질적인 하위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하위유형들은 내인성-반응성(endogenous-reactive), 정신병적-신경증적(psychotic-neurotic), 및 단극성-양극성(unipolar-bipolar)의 구분들이다. 각 하위유형들 중 어떤 부류의 우울증이 인과귀인과 독특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구분은 아니지만 귀인양식과 관련이 될 것으로 가정되는 우울증의 하위유형들도 있다. 우울증에 대한 무망감 모델로부터 도출된 무망감우울증(hopelessness depression) 또는 부정적사고우울증(negative cognition depression)이 그 예인데(Abramson et al., 1988), 아직까지 이 하위유형을 변별해낼 수 있는 측정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실제 연구에 적용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 또 다른 하위유형으로 Beck(1983)이 제안한 사회지향성-자율성(sociotropy-autonomy) 성격차원과 Blatt와 그의 동료들(Blatt, D'Afflitti, & Quinlan, 1976)이 주장한 의존형-자기비난형 구분이 있다. 이 두가지의 하위유형은 SAS(Sociotropy Autonomy Scale, Beck, Epstein, Harrison, & Emery, 1983)와 DEQ(Depressive Experience Questionnaire, Blatt et al., 1976)라는 측정도구를 통해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이 가능하다. 귀인의 내외성과 우울의 관계가 일관적이지 못한 결과를 보이는 것이 이러한 구분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Coyne & Gotlib, 1983). 즉 의존형 또는 사회지향



성 우울증 환자들은 부정적인 사건을 외적인 요인에 귀인하는 반면 자기비난형 또는 자율성 우울증 환자들은 부정적인 사건을 내적인 요인에 귀인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구분없이 인과귀인을 측정하면 두 효과가 서로 상쇄된다는 것이다.

### 연구방략의 문제

우울증과 인과귀인의 관계를 검증하려는 연구들의 연구방략은 크게 두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가 횡단적인 접근법을 사용한 연구들이고 다른 하나는 종단적인 접근법을 사용한 연구들이다. 횡단적 설계에는 상관연구와 실험연구가 포함된다. 대부분의 상관연구는 ASQ를 통해 귀인양식을 측정하고 BDI 등으로 우울정도를 측정하여 그 둘간의 상관관계를 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몇 연구에서는 최근에 일어난 생활사건을 함께 측정하여 생활사건과 귀인양식의 상호작용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상관연구는 인과귀인과 우울의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약점을 지닌다. 실험연구에서는 우울한 피험자와 우울하지 않은 피험자들에게 과제를 제시하고 그 과제의 성공실패를 조작한 다음 귀인을 측정하는 방식이 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방식의 실험절차로는 귀인양식이 우울증의 원인적 역할을 한다는 취약성 가설을 검증하기보다는 우울정도가 상황적인 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횡단적 설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종단적 설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보다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종단적 설계가 선호되고 있는 것 같다. 종단적 설계에서는 스트레스가 되는 생활사건과 귀인양식의 상호작용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귀인양식이 우울증의 발생과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설계를 사용하는 데에는 연구수행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포함하여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생활사건의 측정이 개인의 기억에 의존함으로써 생기는 편중의 가능성이 있으며(Alloy, Hartlage, & Abramson, 1988), 측정의 시기에 따라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다(Metalsky et al., 1987). 이같은 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 우울증에 관한 인과귀인모델은 종단적 설계를 통해 좀더 바람직하게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결과들의 이론적 함의

여러가지 방법론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에서 우울한 사람들과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간의 흥미롭고 신뢰로운 몇가지 차이가 도출되었다. 두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러한 차이의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첫번째 질문은 우울한 사람들의 인과귀인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과귀인보다 더 정확한가? 혹은 덜 정확한가? 하는 것이고, 두번째 질문은 우울한 사람들의 인과귀인이 우울증의 발생과 유지에 어떻게 관련 되는가? 하는 것이다.

### 우울증과 인과귀인의 사실주의

심리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정상인들보다 현실에 대한 통찰력을 더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 수세기 동안 간헐적으로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까지 이러한 주장들이 과학자들에게서 나오지는 않았다. 우울증에 관한 주된 과학적 견해는 우울증이 인지적 진실성(cognitive veridicality)이 아닌 인지적 왜곡과 오류의 결과라는 것이다(Beck, 1967; Seligman et al., 1979).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입장은 우울한 사람들이 여러가지 판단활동에서 덜 편중적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Taylor & Brown, 1986). 즉 통제에 대한 지각(예, Langer, 1975), 수반성 판단(contingency judgement, 예, Alloy & Abramson, 1979), 성공에 대한 기대나 예언(예, Alloy & Ahrens, 1987), 자기와 타인의 비교(예, Garber & Hollon, 1980), 자기평가(예, Lewinsohn, Mischel, Chaplin & Barton, 1980), 및 피이드백의 회상과 지각(예, Vestre & Caulfield, 1986) 등과 같은 인지적 활동에서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적 사실주의(depressive realism)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울적 사실주의가 인과귀인에서도 드러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Alloy(1982)는 귀인의 내외성, 안정성, 및 총체성 차원에서 '긍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을 이기적 귀인편중(self-serving attributional bias)의 지표로 삼아 9개의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

이 우울한 사람들보다 더큰 이기적 귀인편중을 보이며, 우울한 사람들은 귀인에서 편중을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즉, 우울한 사람들은 긍정적 사건과 부정적 사건에서 공평한 귀인을 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이 귀인에서 비대칭성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우울한 사람들보다 성과에 대한 설명에서 덜 정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여기에서 이기성과 정확성의 정의와 그것들의 측정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귀인의 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규준적인 모델이 없이 어떤 집단의 귀인이 다른 집단보다 더 정확하다거나 덜 정확하다고 결론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에 대한 귀인에서 집단들간에 다르다는 것은 뭔가 편중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긍정적 성과와 부정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같다고 가정한다면, 두 성과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귀인하는 것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의 귀인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실험자가 성과를 조작하고 피험자의 행동과 성과가 전적으로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실험실에서는 사실인 것 같다. 이러한 분석방식을 수용한다면, 우울한 사람들이 긍정적인 성과와 부정적인 성과에 대한 설명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에는 문제가 있다. Kahneman과 Miller(1986)는 최근에 사람들이 사건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사건보다 더 정상적이고 덜 놀라움다고 생각되는 대안적인 사건들과 그 사건을 비교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따라서 같은 사건에 대해 여러가지 상이한 귀인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귀인들은 나름대로 정확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 긍정적 성과와 부정적 성과간에 귀인의 차이 유무는 부정확성이나 정확성을 보여주는데 충분치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의 적절성은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이기적 귀인 편중이 어떤 동기에 의해 나타났든 반드시 왜곡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정적인 사건과 긍정적인 사건은 각각 다른 비교를 일으켜 상이한 인과분석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성공을 기대하기 때문에 성공을 내적이고, 안정적이며, 총체적인 요인

으로 설명하며 실패는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외적이고 변동적이며 특정적인 요인으로 설명한다는 사실과도 관련된다(Miller & Ross, 1975). 두번째 함의는 부정적인 성과가 우울한 사람들과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성과가 우울한 사람들에게는 기대되고 놀랍지 않은 결과이며, 따라서 내적이고 안정적인 요인에 귀인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우울한 사람들이 수행과제에서의 성공에 대해 덜 낙관적이라는 증거들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Pyszczynski, Holt, & Greenberg, 1987 참조). 사람들은 자신의 성과를 자신의 기대뿐만 아니라 종종 예상되는 타인의 성과와 비교하기도 한다.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은 수행이 자신의 기대에 어긋날 때 다른 사람들도 비교적 나쁜 수행을 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우울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Coates & Peterson, 1982). 이와 같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울한 사람들과는 달리 실패경험을 외적인 요인에 귀인하는 두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부정적 성과가 자신들의 기대와 과거 경험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자신들에게만 독특하지 않다고 가정하는 점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우울과 비우울의 차이가 귀인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대와 자신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비교에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기대나 비교의 차이는 우울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회적인 경험들을 타인들의 것과 다르게 평가한다기 보다는 그들이 실제로 다른 사회적 경험들을 한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요약하면, 우울한 사람들의 인과귀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혹은 덜 정확한가 하는 의문에 대한 대답은 아직 내릴 수 없다. 오히려 우울한 사람들과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의 기대 중에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가 하는 질문이 더 적절한 것 같다. 그리고 우울한 사람들과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생활사건들이 서로 비슷한지 아니면 다른지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우울증과 인과귀인의 관계

귀인이 어떻게 우울증과 관련되는가? 하는 문제는 우울증과 귀인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의문이다. 귀인

은 우울정서의 결정인자, 우울정서의 효과, 그리고 우울정서와 비인과적으로 관련된 변인 등 세가지 방식으로 우울증과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우선 인과귀인이 우울증의 원인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Beck(1967)과 Seligman 등(1979)은 우울한 사람들의 생각, 신념, 그리고 추론 등이 우울상태와 인과적으로 관련된다는 모델을 설정하였다. Abramson 등(1978) 이후 귀인과 우울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우울귀인양식이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우울증을 촉발시킨다고 가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바에 의하면, 이전 연구들에서는 우울정서와 인과귀인간의 관련성에 관한 증거들이 혼합적이며, 가장 확실한 결과는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부정적 성과에 대해 덜 이기적인 귀인을 한다는 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 결과에 대한 하나의 해석은 부정적 성과를 내적, 안정적, 총체적으로 귀인하는 경향은 사람들을 우울증에 취약하게 한다는 것이다. Tabachnick-Kayne 등(1986)의 연구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 낮은 성적을 받은 후에 우울해지느냐 하는 것은 시험수행에 대한 학생들의 구체적인 귀인에 의해 예언되었다. 이와 비슷한 결과와 ASQ를 사용한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다(Metalsky, Abramson, Seligman, Semmel, & Peterson, 1982). 이 연구에서는 부정적 사건에 대한 내외성 및 안정성 귀인이 중간고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후에 우울정서를 예언하였다. 그러나 Williams(1985)는 Metalsky 등(1982)에 의해 행해진 분석이 특이질-스트레스 가설에 대한 적절한 검증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부가적 분석에서 귀인과 우울사이의 관계가 낮은 성적을 받은 것에 의해 증대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다. Metalsky 등(1987)은 이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귀인양식의 역할에 대해 좀더 강력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 사건에 대한 안정적이고 총체적인 일반적 귀인양식이 나쁜 성적과 상호작용하여 우울의 지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임상 우울증환자들이 우울증상이 완화된후에도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귀인편중을 지속시켰다는 Eaves와 Rush(1984)의 연구결과도 귀인양식이 우울증의 원인적 역할을 하는 취약성 요인이라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에서는 우울귀인양식 가설이 충분히 지지되지 않고 있다. Cochran과 Hammen의 연구(1985)에서는 시험 2달전에 얻어진 학생들의 귀인양식이 시험수행에 대한 반응을 예언하지 못했다. 교차상관패널분석을 이용한 연구에서 Golin 등(1981)은 부정적 사건에 대한 안정성 및 총체성 귀인이 한 달 후의 우울을 예언하지만, 내외성 귀인은 우울을 예언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더구나 안정성 및 총체성 귀인이 우울을 설명하는 변량도 적었다. Peterson 등(1981)은 우울이 ASQ 반응에서의 기질적 자기비난과 관련되지만, 자기비난의 정도가 6개월 후와 12개월 후의 우울을 예언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Lewinsohn, Steinmetz, Larson, 및 Franklin(1981)은 지역사회 전집을 사용한 종단적 연구에서 가상적 사건들에 대한 인과귀인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의 우울증 발생이나 우울한 사람들의 경과를 예언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산후우울증(post-partum depression)의 발생을 예언하는 ASQ의 능력에 대해 알아 보는 연구들에서도 혼합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Cutrona(1983)와 O'Hara 등(1982)의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한편, Manly, McMahon, Bradley, 및 Davidson의 연구(1982)와 O'Hara, Neunaber, 및 Zekoski(1984)의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귀인의 우울증과의 인과적 관련성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또다른 접근 방법은 인과귀인을 변화시킨 후 정서경험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성질의 증재 연구들은 우울한 사람들의 귀인을 조작하는 것이 이전에 보여주었던 행동결손을 감소시킨다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Dweck, 1975; Klein, Fencil-Morse, & Seligman, 1976). 그러나 이 연구들은 이러한 귀인의 조작이 우울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지 않았다. 이 논제를 다룬 한 연구가 Miller와 Norman(1981)에 의해 보고되었다. 이 연구자들은 무기력 조작에 의한 부정적 감정이 내적으로 귀인되도록 격려된 성공경험에 의해 감소되는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귀인조작 효과는 임상우울환자와 완화된 우울환자들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바람직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부정적 성과 후에 우울정서에 대한 외적인 귀인의 영향을 평가한 연구는 없

다. 이같은 유형의 연구가 귀인의 힘을 알아보는 데 적절할 것이다.

귀인이 우울증의 발생에서 인과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은 제한적으로밖에 지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Brewin(1985)도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Brewin의 개관은 우울적 귀인이 우울의 증상이라는 증상 모델과 우울일화의 경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여진다는 회복 모델 또는 대처모델을 지지하였다. 그는 방법론적인 문제들이 귀인과 우울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자신있는 결론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준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Abramson, Metalsky, 및 Alloy(1986)의 개관에서는 이전 연구들의 우울에 대한 귀인의 영향이 부정적 생활사건의 발생에 의해 중재되는지를 평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우울정서의 효과로서의 인과귀인을 보는 입장들을 살펴보겠다. 정서가 기억(Bower, 1981; Bower, Monteiro, & Gilligan, 1978), 주의과정(Mischel, Ebbesen, & Zeiss, 1973), 및 태도나 행동들(Isen, 1970; Isen & Levin, 1972)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어왔다. 정서유도기법이 인과귀인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한 연구는 별로 없으며, 그 결과들도 일관적이지 않다. Alloy, Abramson, 및 Viscusi(1981)는 비수반적인 성과에 대한 통제판단에 미치는 정서유도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긍정적정서가 유도된 우울한 사람들이 비수반적 과제에 대해 '통제의 착각'을 보였다. 역으로 부정적인 정서가 유도된 정상인들이 수반성 추정에서 습관적인 이기적 편중을 보이지 않았다. Mukherji, Abramson, 및 Martin의 연구(1982)에서는 부정적 정서유도가 이기적 귀인편중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강력한 경험적 증거는 부족하지만, 부정적인 정서가 왜 부정적 성과에 대한 내적이고, 안정적이며, 총체적인 귀인을 유도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첫째, 부정적 정서가 사람을 자신 내부에 초점을 두도록 하여 더 많은 내적 귀인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Duval & Wicklund, 1972). 두번째는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상태에서보다 다른 부정적인 경험들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한다는 것이다. Bower(1981)와 Isen(1970)은 정서가 정서일치적인 정보의 회상을 촉진하는 단서로 작용할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의 가용성이 커지면, 미래의 부정적인 사건이 덜 놀라운 일이 되고 안정적이고 내적인 특성과 더 잘 일치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울과 인과귀인이 제3의 다른 변인에 의해 중재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과귀인은 우울증의 원인론에 부수적인 현상일 것이다. 가능한 제 3변인중 하나가 '인지도식'이다. Beck(1967)은 원래 이 용어를 정보처리의 여러 면에 영향을 주는 우울증 환자들의 비교적 안정적인 인지적 표상으로 사용하였다. Kuiper와 그의 동료들(Derry & Kuiper, 1981; Kuiper, Olinger, MacDonald, & Shaw, 1985)은 우울증의 부정적인 자기도식의 중요성을 명료화하였다. 이들의 연구를 통해 우울정서와 인과귀인이 부정적 자기도식에서 기인되는 병리적 정보처리 경향의 산물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대들(expectancy set)과 같이 자기도식이 정보처리 동안 유발되는 비교의 성질을 결정하는데 작용할 수도 있다. 다른 가능한 제 3변인은 생화학적 요인이다. 인과귀인을 포함하는 우울증의 특징들이 내재하는 생리적 또는 생화학적 장애에 의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약물을 통한 치료가 인과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서상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인과귀인의 역할에 대한 의문은 많은 연구들에 의해 서서히 풀려가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증거들은 주로 정서와 관련성이 적은 사건들에 대해 피험자의 상상된 반응을 요구하는 질문지 연구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좀더 강한 정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인과귀인과 정서상태의 연결을 알아보는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다(Miller & Porter, 1983; Taylor, Wood, & Lichtman, 1983). 현 시점에서 인과귀인이 심각한 우울정서를 유발하거나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좀더 검증이 요구된다고 해야 할 것 같다.

## 미래의 연구를 위한 제언

우울증에 관한 인과귀인의 모델은 특이질-스트레스

가설로 개념화되어 왔다(Abramson et al., 1988). 이 가설에서는 원격 기여원인(distal contributory cause)인 귀인양식에서의 개인차가 근접 기여원인(proximal contributory cause)인 특정한 부정적 생활사건과 상호작용하여 우울증의 발생에 기여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귀인양식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행해져 왔으나, 이에 비해 부정적인 생활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들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우울증의 인과귀인 모델을 적절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되는 생활사건을 포함시킨 연구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스트레스가 되는 생활사건은 인과귀인 모델에서 두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하나가 수동적인 역할로서, 개인이 귀인판단을 하는데 필요한 상황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들에 비해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은 당면한 자신의 실패를 합치성(consensus)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내적인 원인으로 귀인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능동적인 역할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귀인양식을 활성화시키거나 촉발시키는 것이다. 우울증의 귀인모델에서는 두번째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역할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개인에게 일어난 생활사건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사건을 측정하는데에는 단순히 경험하는 생활사건의 빈도를 측정하는 방식과 각 생활사건에 서로 다른 객관적인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점수를 사용하는 방식이 쓰여왔다. Alloy 등(1988)은 어떤 생활사건이 귀인양식과 상호작용하여 우울을 예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두가지 측정방식을 함께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개인이 주관적으로 가중치를 주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생활사건의 어떤 측면이 측정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는 생활사건이 바람직한가, 일상적인 불편 인가 또는 주요한 생활사건인가, 일화적인 사건인가 또는 만성적인 사건인가, 사건의 초기인가 또는 말기인가, 그리고 통제가능한 사건인가 또는 통제불가능한 사건인가 하는 차원 등과 같은 여러 측면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생활사건의 발생과 우울증의 발병과의 시간적 관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 3개월 이내에 일어난 사건들이 우울증 발

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Lloyd, 1980). 이러한 문제와 아울러 생활사건의 측정이 우울 증상에 의해 왜곡되거나 오염될 가능성도 조심해야 할 문제이다. 즉, 우울한 사람들이 자신의 불편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생활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시킬 수 있으며, 우울증상의 일환으로 부정적인 생활사건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상과 같이 생활사건을 연구에 포함시키는데에는 고려할 점들이 많다.

사람들이 인과적인 귀인을 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황적 정보와 개인의 일반화된 기대를 들 수 있다(Metalsky & Abramson, 1981). 객관적 정보와 기대가 합치될 때에는 귀인판단이 정확해지나, 그 두가지가 합치되지 않을 때에는 귀인이 편중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울 귀인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객관적인 상황정보를 이용하거나 지각하는데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기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화된 주관적 기대라는 개념은 도식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것 같으며 모호한 구성개념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객관적인 상황정보란 개념은 이미 Kelley(1967)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 그는 귀인의 공변모델에서 합치성(consensus), 일관성(consistency), 및 특이성(distinctiveness) 등 세가지의 정보의 유형이 귀인을 결정한다고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정보들, 즉 전귀인 변인들(preattribitional variables)과 인과귀인, 그리고 우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우울증의 인과귀인 모델이 보다 정교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몇 연구들이 이 문제를 다루었지만, 주로 합치성 정보에 국한되었으며 외현적 합치성(implicit consensus)보다는 내현적 합치성(implicit consensus)과의 관계를 탐색하는데 그쳤다(Crocker, Alloy, & Kayne, 1988). 물론 객관적인 정보인 외현적 합치성을 어떻게 측정해내느냐 하는 점이 문제이다. 전귀인 변인들을 정확하게 측정해낸다면 우울한 사람들의 귀인이 정확한가하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인과귀인과정을 하나의 추론과정으로 간주한다면,

인과추론에서도 추론방략이나 추단율(heuristics)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오류가 초래될 수 있다(Nisbett & Ross, 1980). 우울한 사람들이 이러한 추단율이나 추론방략을 사용하는 면에서 정상인들과 다를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Hayes & Hesketch, 1989). 우선 가용성(availability) 추단율은 기억으로부터 쉽게 인출되는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울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건들을 쉽게 회상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편향된 정보를 사용하여 인과귀인을 할 수도 있다. 또한 기저율을 적게 사용하는 방략을 쓸 경우에,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남들도 경험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자신에게 증상이 없었던 기간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자해적인 귀인을 할 가능성이 있다. 대표성 추단율 사용에서는, 편중된 주위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기비난적으로 귀인을 할 수 있다. 우울증의 인과귀인과 추단율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행해진적은 없으나, 전귀인 변인들과 관련지어 연구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우울집단과 비우울 집단의 인과귀인의 차이가 좀더 근본적인 정보처리의 차이로 추적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중 하나가 두 집단이 경험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이 다를 것이라는 점이다. 평가기준에는 과거경험, 이상적인 목표, 상상된 가능한 세계 등이 포함된다(Kahneman & Miller, 1986). 이러한 추측을 지지하는 것으로는 Higgins, Klein, 및 Strauman (1985)이 우울증을 실제자기(real self)와 이상적 기준(희망, 소원 등)간의 괴리와 관련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제식의 연구(1990)에서도 가능한 자기(possible self)라는 개념이 귀인양식 및 우울과 각각 상관되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우울증이 자기초점적인 과정과 관계된다는 점도 우울한 사람들이 이러한 평가기준을 사용할 가능성을 간접적으로나마 뒷받침하는 것 같다.

우울증의 인과귀인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자발적인 귀인보다 유발된 귀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Kahneman과 Miller(1986)는 유발된 추론이 자발적인 추론에 관한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지적하였다. 즉 유발된 귀인을 사용한 연구들은 자발적인 귀인에서보다 과장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우울한 사람들과 우울하

지 않은 사람들이 자발적 귀인을 하는 정도가 다를 수도 있다. 인과적 질문에 몰입하는 경향에 개인차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Wortman, 1983), 최근의 연구에서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과 귀인 정보의 사용에서 차이가 난다는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Alloy & Ahrens, 1987; McCaul, 1983; Weary, Elbin, & Hill, 1987; Weary, Jordan, & Hill, 1985).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복잡한 귀인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Fletcher, Danilovics, Fernandez, Peterson, & Reeder, 1986; Flett, Pliner, & Blankstein, 1989). 이 연구들에서는 귀인복잡성(attributional complexity)이라는 개념을 가정하고, 우울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성과에 대해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에 동시에 귀인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불투명하게 하여 자존심을 고양시킬 수도 있다는 추측을 제시하고 있다. 귀인복잡성의 존재를 처음 확인한 것은 Wimer와 Kelley(1982)였으며, 귀인복잡성을 측정하는 척도(ACS: Attributional Complexity Scale, Fletcher et al., 1986)도 개발되었다. 이같은 귀인복잡성의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의 연구에서 하나 이상의 원인에 귀인하도록 하는 연구방략을 채택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또하나의 논제는 우울 귀인양식이 우울증에만 특징적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정신병리에도 해당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몇몇 연구들이 이 문제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지만, 그 결과가 일관적이지 못한 것 같다(신현균, 1990). 이것은 우울과 다른 정신병리가 개념적으로 그리고 측정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된다. 따라서 우울과 다른 정신병리, 특히 불인과의 관계를 정확히 밝혀서, 공통적인 부분이 무엇이고 특징적인 부분이 어떤 점인지를 명세화 해야 할 것이 우선 요구된다.

우울증내에서도 특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성취관련 영역이나 대인관계관련 영역의 생활사건과 귀인양식이 각각 대응될 때 각기 다른 우울증상들을 일으킬 것이라는 가정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성취관련 영역에 대한 귀인양식과 대인관계관련 영역에 대한 귀인양식이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들

이 많은 편이어서, 이러한 특정적 취약성 가설은 지지되지 않는 것 같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ASQ보다 문항수가 증가한 귀인양식 척도가 사용된 연구(Metalsky et al., 1987)에서는 성취관련 영역의 내용특정적 취약성 가설이 지지된 바 있다. 이 문제는 우울증 하위유형들의 구분에 대한 타당성에도 관련지을 수 있다. 덧붙여 우울증의 한 증상인 자존심의 손상이 우울보다 우울귀인양식의 더 좋은 예언자라는 입장들(Tennen & Herzberger, 1987; Tennen, Herzberger, & Nelson, 1987)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끝으로, 우울귀인양식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부모, 그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와 국민학교 교사가 아동들의 귀인양식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시사되었다(Dweck & Licht, 1980; Seligman & Peterson, 1986). 좀더 통제된 연구를 통하여 귀인양식이 발달되는 과정을 명세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맺는말

본 고에서 개관된 연구들은 우울한 사람들의 인과귀인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덜 이기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적어도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부정적 성과에 대해 안정적이고 총체적인 원인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두 집단이 귀인양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아주 적은 차이를 나타내는 것 같다. 이같은 결과들은 이전 연구들이 지녔던 방법론적인 문제점들을 보완한 연구를 통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과귀인에서 더 정확한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다. 이같은 판단을 위해서는 귀인 정확성의 기준이 되는 객관적인 정보들이 얻어져야 하며, 합의성, 일관성, 및 특이성 정보들이 개인이 귀인을 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우울한 사람들의 귀인양식이 자신의 우울증의 발생과 유지에 공헌하는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결

론짓기 어렵다. 우울증의 인과귀인 모델이 특이질-스트레스 가설로서 적절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기된 개념적으로 모호한 관련변인들과 방법론적인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연구들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울증의 인과귀인에 대한 연구들이 임상적으로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재귀인 훈련을 통해 우울증 환자의 비합리적인 귀인을 교정함으로써 우울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시되어 왔다. 즉 우울한 사람들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의 원인을 부적절하게 지각하고 있다면, 치료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합치성, 일관성, 및 특이성 정보가 검토될 수 있다. 그리하여 환자로 하여금 예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정보단서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거나 가용한 공변 정보에 대한 평가를 교정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귀인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Hayes & Hesketh, 1989). 귀인모델을 적용한 우울증의 치료 방안이 이같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아직 임상장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또한 치료 성과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귀인모델을 적용한 치료와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활발해질 것이 기대된다. 이에 앞서서 우울증에서의 귀인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검토되어야 하고, 우울한 사람들의 귀인이 비합리적일 것이라는 가정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신현균(1990). 비합리적 사고와 귀인양식에 있어서 우울집단과 불안집단 비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이계식(1990). 자기개념 형태에 따른 귀인양식과 우울, 불안 특질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임양화·오경자(1989). 우울한 아동의 귀인유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8권 1호, 69-76.
- Abramson, L. Y., Alloy, L. B., & Metalsky, G. I. (1988). The cognitive diathesis-stress theories of

- depression: Toward an adequate evaluation of the theories' validities. In L. B. Alloy(Ed.), *Cognitive processes in depression*. New York: Guilford Press.
- Abramson, L. Y., Garber, J., Edwards, N. B., & Seligman, M. E. P. (1978). Expectancy changes in depression and schizophrenia,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 102–109.
- Abramson, L. Y., Metalsky, G. I., & Alloy, L. B. (1986). *The hopelessness theory of depression: A metatheoretical analysis with implications for psychopathology research*.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Abramson, L. Y., Seligman, M. E. P., & Teasdale, J. D. (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 49–74.
- Alloy, L. B. (1982). *Depression: On the absence of self-serving cognitive biase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 Alloy, L. B., & Abramson, L. Y. (1979). Judgements of contingency in depressed and nondepressed students: Sadder but wiser?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08*, 441–485.
- Alloy, L. B., & Abramson, L. Y. (1982). Learned helplessness, depression, and the illusion of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1114–1126.
- Alloy, L. B., Abramson, L. Y., & Viscusi, D. (1981). Induced mood and the illusion of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1129–1140.
- Alloy, L. B., & Ahrens, A. H. (1987). Depression and pessimism for the future: Biased use of statistically relevant information in predictions for self versus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366–378.
- Alloy, L. B., Hartlage, S., & Abramson, L. Y. (1988). Testing the cognitive diathesis-stress theories of depression: Issues of research design, conceptualization, and assessment. In L. B. Alloy(Ed.), *Cognitive processes in depression*. New York: Guilford Press.
- Anderson, C. A., Horowitz, L. M., & French, R. D. (1983). Attributional style of lonely and depressed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27–136.
- Barthe, D. G., & Hammen, C. L. (1981). The attributional model of depression: A naturalistic exten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7*, 53–58.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eck, A. T. (1983).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perspectives. In P. J. Clayton & J. E. Barrett(Eds.) *Treatment of depression: Old controversies and new approaches* (pp. 265-290). New York: Raven Press.
- Beck, A. T., Epstein, N., Harrison, R. P., Emery, G. (1983). *Development of the Sociotropy-Autonomy Scale: A measure of personality factors in psychopathology*.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 Blaney, P. H., Behar, V., & Head, R. (1980). Two measures of depressive cognitions: Their association with depression and with each oth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9*, 678–682.
- Blatt, S. J., D'Afflitti, J. P., & Quinlan, D. M. (1976). Experiences of depression in normal young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5*, 383–389.
- Bower, G. H. (1981). Mood and memory. *American Psychologist*, *36*, 129–148.
- Bower, G. H., Monteiro, K. P., & Gilligan, S. G. (1978). Emotional mood as a context of learning and recall.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 Behavior*, 17, 573–585.
- Brewin, C. R. (1985). Depression and casual attributions: What is their re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98, 297–309.
- Carver, C. S., Ganellen, R. J., & Behar-Mitrani, V. (1985). Depression and cognitive style: Comparisons between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722–728.
- Carver, C. S., & Scheier, M. F. (1981). *Attention and self-regulation: A control theory approach to human behavior*. Berlin & New York: Springer-Verlag.
- Coates, D., & Peterson, B. A. (1982). Depression and deviance. In G. Weary & H. Mirels(Eds.), *Integration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pp. 154-17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ochran, S. D., & Hammen, C. L. (1985). Perceptions of stressful life events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attribution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562–1571.
- Collins, A. M., & Loftus, E. F. (1975). A spreading activation theory of semantic processing. *Psychological Bulletin*, 94, 472–505.
- Crocker, J., Alloy, L. B., & Kayne, N. T. (1988). Attributional style, depression, and perception of consensus for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40–846.
- Cutrona, C. E. (1983). Casual attributions and perinatal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2, 161–172.
- Cutrona, C. E., Russell, D., & Jones, R. D. (1984). Cross-situational consistency in casual attributions: Does attributional style exi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043–1058.
- Derry, P. A., & Kuiper, N. A. (1981). Schematic processing and self-reference in clinical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 286–297.
- Duval, S., & Wicklund, R. A. (1972). *A theory of objective self-awareness*. New York: Academic Press.
- Dweck, C. S. (1975). The role of expectations and attributions in the alleviation of learned helples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674–685.
- Dweck, C. S., & Licht, B. (1980). Learned helplessness and intellectual achievement. In J. Garber & M. Seligman(Eds.), *Human helplessness: Theory and applications*. New York: Academic Press.
- Eaves, G., & Rush, J. A. (1984). Cognitive patterns in symptomatic and remitted unipolar majo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3, 31–40.
- Feather, N. T. (1983). Some correlates of attributional style: Depressive symptoms, self-esteem, and Protestant ethic valu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9, 125–135.
- Feather, N. T., & Tiggenmann, M. (1984). A balanced measure of attributional style.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36, 267–283.
- Fletcher, G. J. O., Danilovics, P., Fernandez, G., Peterson, D., & Reeder, G. D. (1986). Attributional complexity: An individual differences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875–884.
- Flett, G. L., Pliner, P., & Blankstein, K. R. (1989). Depression and components of attributional complex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757–764.
- Garber, J., & Hollon, S. D. (1980). Universal versus personal helplessness in depression: Belief in uncontrollability or incompetenc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9, 56–66.
- Golin, S., & Hartz, M. A. (1979). A factor analysis of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in a mildly depressed popula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 322–325.
- Golin, S., Sweeney, P. D., & Schaeffer, D. E. (1981). The causality of casual attributions in depression; A cross-lagged panel correlational analy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 14–22.
- Gong-Guy, E., & Hammen, C. (1980). Casual percep-

- tions of stressful events in depressed and nondepressed outpati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9*, 662–669.
- Gotlib, I. H. (1984). Depression and general psychopathology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3*, 19–31.
- Gotlib, I. H., & Olson, J. M. (1983). Depression, psychopathology, and self-serving attribution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 309–310.
- Hamilton, E. W., & Abramson, L. Y. (1983). Cognitive patterns and major depressive disorder: A longitudinal study in a hospital setting.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2*, 173–184.
- Hammen, C., & Cochran, S. D. (1981). Cognitive correlates of life stress and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 23–27.
- Hammen, C., & de Mayo, R. (1982). Cognitive correlates of teacher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Implications for attributional models of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1*, 96–101.
- Hammen, C., Krantz, S., & Cochran, S. (1981).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casual attributions about stressful life even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5*, 351–358.
- Harvey, D. (1981). Depression and attributional style: Interpretation of important personal ev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 134–142.
- Hayes, B., & Hesketh, B. (1989). Attribution theory, judgemental biases, and cognitive behavior modification: Prospects and problem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3*, 211–230.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Heimberg, R. G., Klosko, J. S., Dodge, C. S., Shadick, R., Becker, R. E., Barlow, D. H. (1989). Anxiety disorders, depression, and attributional style: A further test of the specificity of depressive attribution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3*, 21–36.
- Heimberg, R. G., Vermilyea, J. A., Dodge, C. S., Becker, R. E., & Barlow, D. H. (1987). Attributional style, depression, and anxiety: An evaluation of the specificity of depressive attribu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1*, 537–550.
- Higgins, E. T., Klein, R., & Strauman, T. (1985). Self-concept discrepancy theory: A model for distinguishing among different aspects of depression and anxiety. *Social Cognition*, *3*, 51–76.
- Hill, A. B., Kemp-Wheeler, S. M., & Jones, S. A. (1986). What does Beck Depression Inventory measure in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 39–47.
- Ingram, R. E. (1984). Toward an information processing analysis of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8*, 443–478.
- Ingram, R. E., & Hollon, S. D. (1986). Cognitive therapy for depression from an information processing perspective. In R. E. Ingram (Ed.),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es to clinical psych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 Ingram, R. E., & Smith, T. W. (1984). Depression and internal versus external focus of atten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8*, 139–152.
- Isen, A. M. (1970). Success, failure, attention and reaction to others: The warm glow of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294–301.
- Isen, A. M., & Levin, P. T. (1972). On helping: Cookies and kind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 384–388.
- Janoff-Bulman, R. (1979). Characterological versus behavioral self-blame: Inquiries into depression and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798–1809.
- Kahneman, D., & Miller, D. T. (1986). Norm theory: Comparing reality to its alternatives. *Psychological Review*, *93*, 126–153.
- Kahneman, D., Slovic, P., & Tversky, A. (Eds.). (1982). *Judge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 bias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lley, H. H. (1967). Attribution theory in social psychology. In D. Levine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15, pp. 192-238)*.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Klein, D. C., Fencil-Morse, E., & Seligman, M. E. P. (1976). Learned helplessness, depression, and the attribution of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508-516.
- Krantz, S. E., & Rude, S. (1984). Depressive attributions: Selection of different causes or assignment of dimensional mea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93-203.
- Kuiper, N. A. (1978). Depression and casual attributions for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236-246.
- Kuiper, N. A., Olinger, L. J., MacDonald, M. R., & Shaw, B. F. (1985). Self-schema processing of depressed and nondepressed content: The effects of vulnerability to depression. *Social Cognition, 3*, 77-93.
- Langer, E. J. (1975). The illusion of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311-328.
- Lewinsohn, P. M., Mischel, W., Chaplin, W., & Barton, R. (1980). Social competence and depression: The role of illusory self-percep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9*, 203-212.
- Lewinsohn, P. M., Steinmetz, J. L., Larson, D. W., & Frankin, J. (1981). Depression-related cognitions: Antecedents or consequenc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 213-219.
- Lloyd, C. (1980). Life events and depressive disorder reviewed: 2. Events as predicting factor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7*, 542-548.
- Manly, P. C., McMahon, R. J., Bradley, C. F., & Davidson, P. O. (1982). Depressive attributional style and depression following childbirth.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1*, 245-254.
- Marx, M. B., Garrity, T. F., & Bower, F. R. (1975). The influence of recent life experiences on the health of the college freshman.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9*, 87-98.
- McCaul, K. D. (1983). Observer attributions of depressed stud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9*, 74-82.
- Metalsky, G. I., Abramson, L. Y., Seligman, M. E. P., Semmel, A., & Peterson, C. (1982). Attributional styles and life events in the classroom: Vulnerability and invulnerability to depressive mood rea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612-617.
- Metalsky, G. I., Halberstadt, L. J., & Abramson, L. Y. (1987). Vulnerability to depressive mood reduction: Toward a more powerful test of the diathesis-stress and casual mediation components of the reformulated theory of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386-393.
- Miller, I. W., Klee, S. H., & Norman, W. H. (1982). Depressed and nondepressed inpatients' cognitions of hypothetical events, experimental tasks, and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1*, 78-81.
- Miller, I. W., & Norman, W. H. (1981). Effects of attribution for success on the alleviation of learned helpless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 113-124.
- Miller, D. T., & Porter, C. A. (1983). Self-blame in victims of violence. *Journal of Social Issues, 39*, 139-152.
- Miller, D. T., & Ross, M. (1975). Self-serving biases in the attribution of causality: Fact or fiction? *Psychological Bulletin, 82*, 213-225.
- Mischel, W., Ebbesen, E. B., & Zeiss, A. M. (1973). Selective attention to the self: Situational and dispositional determina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7*, 129-142.
- Mukherji, B. R., Abramson, L. Y., & Martin, D. J. (1982). Induced depressive mood and attributional pattern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6*, 5-21.

- Nezu, A. M., Nezu, C. M., & Nezu, V. A. (1986). Depression, general distress, and casual attributions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 184-186.
- Nisbett, R. E., & Ross, L. (1980). *Human inference: Strategies and shortcomings in social judge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O'Hara, M. W., Neunaber, D. J., & Zekoski, E. M., (1984). Prospective study of postpartum depression: Prevalence, course and predictive facto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3*, 158-171.
- O'Hara, M. W., Rehm, L. P., & Campbell, S. B. (1982). Predicting depressive symptomatology: Cognitive-behavioral models and postpartum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1*, 457-461.
- Oliver, J. M., & Williams, G. (1979). The psychology of depression as revealed by attribution causality in college studen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 355-360.
- Overmier, J. B., & Seligman, M. E. P. (1967). Effects of inescapable shock upon subsequent escape and avoidance lear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28-33.
- Perloff, J. M., & Persons, J. B. (1988). Biases resulting from the use of indexes: An application to attributional style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Bulletin 103*, 95-104.
- Persons, J. B., & Rao, P. A. (1985). Longitudinal study of cognitions, life events and depression in psychiatric inpati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 51-63.
- Peterson, C., Raps, C. S., & Villanova, P. (1985). Depression and attributions: Factors responsible for inconsistent results in the published literatur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 165-168.
- Peterson, C., Schwartz, S. M., & Seligman, M. E. P. (1981). Self-blame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253-259.
- Peterson, C., & Seligman M. E. P. (1984). Casual explanationa as a risk factor for depression: Theory and evidence. *Psychological Review, 91*, 347-374.
- Peterson, C., Semmel, A., von Baeyer, C., Abramson, L. Y., Metalsky, G. I., & Seligman, M. E. P. (1982). The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6*, 287-300.
- Peterson, C., & Villanova, P. (1988). An expanded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87-89.
- Pyszczynski, T., Holt, K., & Greenberg, J. (1987). Depression, self-focused attention, and expectancies for positive and negative future life events for self and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994-1001.
- Raps, C. S., Peterson, C., Reinhard, K. E., Abramson, L. Y., & Seligman, M. E. P. (1982). Attributional style among depressed pati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1*, 102-108.
- Rizley, R. (1978). Depression and distortion in the attribution of causal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 32-48.
- Robins, C. J. (1988). Attributions and depression: Why is the literature so inconsist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80-889.
- Robins, C. J., & Block, P. (1989). Cognitive theories of depression viewed from a diathesis-stress perspective: Evaluations of the models of Beck and of Abramson, Seligman, and Teasdal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3*, 297-313.
- Sacks, C. H., & Bugental, D. B. (1987). Attributions as moderators of affective and behavioral responses to social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939-947.
- Seligman, M. E. P., Abramson, L. Y., Semmel, A., & von Baeyer, C. (1979). Depressive attributional styl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8*, 242-247.
- Seligman, M. E. P., Castellon, C., Caccocia, J.,

- Schulman, P., Luborsky, L., Ollove, M., & Downing, R. (1988). Explanatory style change during cognitive therapy for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13–18.
- Seligman, M. E. P., & Peterson, C. (1986). A learned helplessness perspective on childhood depression: theory and research. In M. Rutter, C. E. Izard, & P. B. Read (Eds.), *Depression in young people* (pp. 223–249). New York: Guilford Press.
- Sharp, J., & Tennen, H. (1983). Attributional bias in depression: The role of cue percep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7*, 325–332.
- Tabachnik-Kayne, N., Alloy, L. B., Romer, D., & Crocker, J. (1986). *Predicting depression and elation reactions in the classroom: A test of the attributional diathesis-stress theory of depression*.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Tashakkori, A., Barefoot, J., & Mehryar, A. H. (1989). What does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measure in college students?: Evidence from non-western cultur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5*, 595–602.
- Taylor, S. E., & Brown, J. (1986). *Illusion and well-being: some social psychological contributions to a theory of mental health*. Unpublished manuscript.
- Taylor, S. E., Wood, J. V., & Lichtman, R. R. (1983). It could be worse: Selective evaluation as a response to victimiz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39*, 19–40.
- Tennesen, H., & Herzberger, S. (1987). Depression, self-esteem and the absence of self-protective attributional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72–80.
- Tennen, H., Herzberger, S., & Nelson, H. F. (1987). Depressive attributional style: the role of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55*, 631–660.
- Tulving, E. (1972). Episodic and semantic memory. In E. Tulving & W. Donaldson (Eds.), *Organization of memory*. New York: Academic Press.
- Turk, D. C., & Speers, M. A. (1983). Cognitive schemata and cognitive processes in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s: Going beyond the information given. In P.C. Kendall (Ed.), *Advances in cognitive-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Vol. 2, pp. 1–32). New York: Academic Press.
- Vestre, N. D., & Caulfield, B. P. (1986). Perception of neutral personality description by depressed and nondepressed subjec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0*, 31–36.
- Ward, L. G., Friedlander, M. L., & Silverman. (1987). Children's depressive symptoms, negative self-statements, and causal attributions for success and failu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1*, 217–227.
- Watson, G. M. W., & Dyck, D. G. (1984). Depressive attributional style in psychiatric inpatients: Effects of reinforcement level and assessment procedur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3*, 312–320.
- Watson, G., Elbin, S., & Hill, M. (1987). Attributional and social comparison processes in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605–610.
- Watson, G., Jordan, J. S., & Hill, M. G. (1985). The attributional norm of intentionality and depressive sensitivity to social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283–1293.
- Weiner, B., Frieze, I., Kukla, A., Reed, L., Rest, S., & Rosenbaum, R. M. (1971). Perceiving the causes of success and failure. In E. E. Jones, D. E. Kanouse, H. H. Kelley, R. E. Nisbett, S. Valins, & B. Weiner (Eds.) *Attribution: Perceiving the causes of behavior* (pp. 95–120). Morristown, NJ: General Learning Press.
- Williams, J. M. G. (1985). Attributional formulation of depression as a diathesis-stress model: Metalsky et al. reconsider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572–1575.
- Wimer, S., & Kelley, H. H. (1982). An investigation

- of dimensions of causal attribu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1142-1162.
- Wortman, C. B. (1983). Coping with victimization: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Social Issues*, 39, 195-221.
- Zautra, A. J., Guenther, R. T., & Chartier, G. M. (1985). Attributions for real and hypothetical events: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 530-540.
- Zemore, R., & Johansen, L. Y. (1980). Depression, helplessness, and failure attribution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12, 167-174.
- Zuckerman, M., & Lubin, B. (1965). *Manual for the Multiple Affect Adjective Check List*. San Diego, CA: Educational and Industrial Testing Service.
- Zuroff, D. D. (1981). Depression and attribution: Some new data and a review of old data.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5, 273-281.

원고 초 본 접수 : 1990. 8. 7  
 원고 수정본 접수 : 1990. 10. 4

**Depression and Causal Attribution; A Review**

**Young-Ho Lee and Ho-Taek W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ies that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depression and causal attributions have shown inconsistent findings. It was concluded in this review that attributions to stable-global causes for negative events showed a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depression, but that the relations between depression and attributions for positive events were weaker than the corresponding ones for negative events. Several methodological problems, such as measurements of attributional style, heterogeneity of depression, and research strategies, were noticed. The depressive realism and the causal role of depressive attributional styles in depression were discussed. And th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testing the diathesis-stress model of depression were proposed.